동국 빛낸 인물 100인 평전 발간된다

건학위 17일 '동국의 빛' 첫 시리즈 공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스님 등 7인 평전 출간돼
세월호 희생 최혜정 동문 포함
매년 10명 씩, 총 100명 목표


평전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동국대를 빛낸 인물들에 대한 평전이 시리즈로 발간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교 116년 역사 속 학교를 빛낸 인물에 대한 평전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는 매년 10명씩 총 100인에 대한 평전이 시리즈로 출간되며, 1차로 박한영 · 한용운 · 김법린 · 백성욱 · 서정주 · 조지훈 · 최혜정 7인에 대한 평전을 '살아서 향기로웠던 사람들' 을 주제로 묶어 공개했다.

'살아서 향기로웠던' 7인은 성별도 활동 분야와 시대도 제각각 다르다. 그러나 '헌신' 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한 울타리 가족과 같다. 모교에 몸담으면서 사람다움을 배우고, 그 사람다움으로 세상에 커다란 지혜와 감동을 선사한 사람들이다.

〈천재들의 스승〉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근대 인문학 개척자, 독립지사인 석전 박한영 스님을 다룬 평전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어둡고 험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았던 박한영 스님은 유학과 노장사상, 서양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민감했던 학자이자 학승으로 그 시대 지성들의 담론 형성을 주도했다. 또 방황하는 식민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나눠주며 인문학의 숲을 밝히던 큰 별이었기에 그 별빛 아래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스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품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과 문학을 좇는다. 평전은 만해의 발자취를 따라 러시아와 일본 및 중국까지 추적했던 교수와 제자들이 1차 자료를 중심으로 12번에 걸쳐 진행된 대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나비야 청산가자〉는 김법린의 삶을 조명한 평전이다. 매 시기마다 필요한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에 옮겼던 김법린의 삶을 통해 근대화와 독립운동 등을 돌아보게 한다.

〈땅에서 일어난 하늘〉은 동국대 제2대 총장을 역임한 백성욱을 조명했다. 백성욱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고, 불교 학자이자 저술가였다. 교육가이자 정치가였고 사업가로도 활동했다. 말년에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공부하는 데 매진했다.

〈한국시의 큰 별〉은 미당 서정주 시인을 다룬다. 책은 기존의 서정주 연구서나 평전과 많이 다르다. 21세기 독자이자 학생일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서정주의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보여준다.

〈늬들 마음 우리가 안다〉는 조지훈 시인의 이야기다, 그는 말과 행동에 공연한 것이 없었으며, 일마다 시시한 결말이 없었다. 망국의 청년시절에 꾸었던 꿈들을 되찾은 나라에서 하나하나 실현해냈다.

〈연꽃으로 피어난 참스승〉도 눈길이 가는 평전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순직한 최혜정 교사를 다뤘다. 최혜정 교사의 삶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의 희생은 투철한 역사의식의 발로였음을 밝힌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제2건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동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평전 시리즈를 출판하게 됐다"며 "우리 동국의 건학이념으로 세상을 밝힌 동국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정리할 기회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출간된 7권의 도서 출간 이후 만암 스님, 양주동, 정채봉, 노희두, 김동화, 박영석 등 동국을 빛내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든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헌신적인 삶을 정리해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학위원회는 오는 6월 〈인간 국보 양주동〉, 〈천의 얼굴 감독 유현목〉, 〈4.19혁명열사 노희두〉를 발간할 예정이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문화재청장 임명

尹대통령, 13일 청장 · 차관 인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활동



범종 전문가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차관 및 처 · 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최응천 교수를 윤석열 정부 첫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했다.

최응천 교수는 동국대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규슈대학에서 '한국 범음구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을 거쳐 국립춘천박물관 초대 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아시아부장, 미술부장으로 국립박물관에서 25년간 근무했다.

2008년부터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동산, 무형분과)과 일본 다이쇼대학 객원 교수(2015)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박물관장과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금속공예와 범종 전문 학자로서 최응천 교수의 입지는 확고하다. '18세기 범종의 양상과 주종장 김성원의 작품' 으로 제14회 동원학술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범종 연구를 망라한 〈한국의 범종〉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연구에도 매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프랑스 기메 박물관,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 등의 문화재 조사에 참여했다. 2009년 중국, 일본학자들과 떠난 중국 저강성 연구조사에서 확인한 닝보시 천봉탑 지궁에서 발굴된 남송(南宋) 불상이 통일신라서 전래된 것임을 주장해 이를 수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응천 교수는 "불교미술사학자로서 전문성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살려 문화재 현안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문화재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노위, 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진상규명 · 유해 귀환 염원
"광주 정신 미얀마에 힘을"



조계종은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42주년 희생자 추모재' 를 봉행했다.

광주 5 · 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행방불명자 유해 귀환을 염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5월 18일 서울 법련사에서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42주년 희생자 추모재' 를 봉행했다. 5 · 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추모재는 42년 전 광주에서 민주, 정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인 동시에 5 · 18정신 계승 발전을 염원하는 법석이었다.

추모재는 사노위원 동신 스님의 집전으로 나무아미타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으로 20여 분간 이어졌다.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참석자들은 영단에 헌화와 헌다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혜도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스님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42년이지만 진상규명,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와 유해 발굴 등은 여전히 진실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상자들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도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은 80년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민주화로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 정신이 멀리 미얀마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미얀마에 민주화가 조속히 오기를 서원하기도 했다.

장신환 5 · 18서울기념사업회장은 "5월이 오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스님들의 기도는 큰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면서 "살아남은 것이 부끄럽지 않게 희생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 한국 사회가 평등한 세상, 통일 세상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등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한편 사단법인 광주영산재보존위원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도 같은 날 국립5 · 18민주묘역에서 위령재를 봉행했다. 군부의 총탄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날 위령재는 광주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의식중 지장청, 작법바라 등을 통해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임은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회는 5월 12일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 비구니화엄회, 우크라이나 구호기금

아름다운동행에 1천만원 전달

부산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구니 스님들의 봉사모임 화엄회(회장 상화)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힘을 보탰다.

화엄회는 5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이 참석했다.

효광 스님은 회장 상화 스님을 대신해 인사를 전하고 "기금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스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